

광주시청 양궁팀, 전 국대 김수린 영입 '명가재건' 나선다

기보배·장유정·이보영 떠난 공백 김채운·전완서 등 3명 영입 팀 안정화 초점...새 전략 계획도

광주시청 양궁팀이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 광주시청 양궁팀은 지난 1일 새로운 세 명의 선수 김수린(29), 김채운(28), 전완서(24)를 영입했다. 한국 여자 양궁의 대표주자 기보배와 장유정, 이보영이 떠나며 생긴 공백을 채워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세 명의 영입 선수들은 기존 멤버인 전 국가대표 최민선, 지난해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은 이가영과 한 팀을 이뤄 광주시청 양궁 '명성 되찾기'에 나선다. 고학년 슈팅이 장점인 김수린은 대구체육고-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모비스에서 뛰었다. 2년 연속 (2021-2022년) 국가대표로도 활동했던 김수린은 안정된 기량을 갖춘 실력파로 주목받는다.

지난해에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인전 3위, 30m 1위, 제41회 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 개인전 1위, 30m 2위, 단체 3위, 혼성단체 1위를 기록했고 제34회 한국실업연맹회장기양궁대회에서도 개인전 1위, 혼성단체 3위, 60m 1위, 50m 3위, 30m 3위 등을 달성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김수린은 "광주시청이 워낙 좋은 팀이고 광주에서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 만큼 열심히 배우고 싶다. 팀 색깔에 어울리는 선수가 되도록 잘해 보겠다"며 앞으로를 다짐했다.

김채운은 광주가 고향이다. 본인이 나고 자란 곳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마음으로 팀에 합류하게 됐다. 광주체고-한국체대를 졸업한 김채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모비스에서 뛰었다.

지난해 제5회 계양구청장배전국양궁대회에서 개인전 2위, 제57회 전국남여종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2위, 60m 3위, 50m 3위, 단체 2위를 달성



광주시청 양궁팀이 3일 오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다. 왼쪽부터 전완서, 이가영, 김채운, 김수린, 최민선.

했고, 제41회 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에서 50m 3위, 단체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채운은 "고향이 광주여서 항상 광주시청이 오고 싶은 팀 1순위였는데 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온 만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광주시청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입단 소감을 밝혔다.

전완서는 이가영과 함께 팀에서 막내다. 성문고-한국체대를 졸업한 전완서는 2022년 열린 제56회 전국남여종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 2위, 2021년 제39회 대통령기전국남여양궁대회 70m 2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대학시절 부상으로 침체기를 거치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컨디션을 회복하는 시간을 보낸 후 광주시청에서 실업 첫발을 내디뎠다.

전완서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즐기면서 활을 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대회에서도 꼭 입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번에 세 명의 선수가 교체된 만큼 광주시청은 현재 팀 안정화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승실 광주시청 감독은 "기존에 큰 별 같은 선수들이 준비했었는데 고령화됐고 선수들이 제2의 인

생을 찾아가기도 했다. 다섯 명 중 세 명이 전격적으로 교체됐다보니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다. 작년까지는 그려진 그림으로 전시하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밑그림을 그리고 새롭게 색을 칠해 나가면서 광주시청 양궁이 앞으로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AI페퍼스가 2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전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페퍼스, GS상대 0-3 패 '13연패 수렁'

야스민 18점·박정아 8점 그쳐

페퍼스가 GS칼텍스에 셋아웃 패배하며 13연패를 기록했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지난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0-3(11-25 17-25 21-25)으로 패했다.

한 세트도 따지지 못하고 완패한 페퍼스는 이번 패배로 13연패를 기록했다.

조반부터 GS칼텍스에 기세를 내어준 페퍼스는 1세트에서 11득점만을 올렸다. 이 중 공격 득점은 5점에 불과했다. 야스민과 박정아가 2득점에 그쳤고, 빌립스가 1득점을 올렸다. 나머지 6점은 GS칼

텍스의 범실 6개가 채웠다.

2세트에서 페퍼스는 리시브 효율이 13.64%에 그치는 등 수비에서 무너졌다.

3세트에서는 페퍼스 야스민이 10득점, GS칼텍스 실바가 9득점을 올렸다. 페퍼스는 21-22까지 따라갔지만, 세 차례 강소휘의 킥오픈 성공과 정대영의 블로킹 득점으로 마지막 세트까지 GS칼텍스에 내줬다.

GS칼텍스는 53.19%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며 페퍼스를 무릎 꿇렸다. 페퍼스의 공격 성공률은 36.78%였다. 이날 경기에서 야스민은 18득점을 올려냈다. 박정아와 박은서는 각각 8득점, 6득점에 그쳤다.

/김진아 기자 jinggi@

'에이스 선수들 대이동' 여자핸드볼 H리그 경기 재개

광주도시공사, 5일 삼척시청과 경기 SK 강경민 등 이적생 활약 기대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가 4일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개막한 신한 SOL페이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는 2경기만 치르고 약 2개월간 중단됐다.

시즌 개막 후 노르웨이에서 열린 세계선수권을 전후해 대표팀 소집 및 대회 출전에 따른 조치였다.

11월 11일에 열린 SK 슈가글라이더즈와 부산시청공단, 11월 12일 서울시청과 대구시청 경기만 개막 시리즈로 진행됐고 삼척시청, 광주도시공사, 인천시청, 경남개발공사는 아직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다.

특히 주요 이적 선수들이 올해 1월부터 새 소속 팀에서 뛰기 때문에 여자부 경기는 사실상 4일이 개막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자부 경기가 재개되는 4일에는 경기도 광명시 민체육관에서 오후 6시부터 SK와 서울시청, 부산시청공단과 대구시청의 경기가 차례로 열린다.

SK는 최근 네 시즌 가운데 세 번이나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강경민을 광주도시공사에서 영입, 전력에 강해졌다.

경남개발공사는 국가대표 센터백 이미경을 부산시청공단에서 데려왔고, 삼척시청에서 뛰던 강은서는 인천시청으로 옮겼다.

외국인 선수는 부산시청공단이 조아나(앙골라)와 알리나(에스토니아), 2명을 기용했고 SK

는 레이(일본)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디펜딩 챔피언" 삼척시청이 지난 시즌까지 코리아리그 2연패를 달성했고, H리그로 명칭이 바뀐 올해 첫 3연패에 도전한다.

강경민을 영입한 SK와 우뚝난의 성장세가 돋보이는 서울시청, 젊은 선수들로 개편한 부산시청공단 등도 상위권 후보로 꼽힌다.

4일 경기에는 에어팟맥스, 치킨 상품권, H리그 기념품 등 선물을 입장 관중들에게 증정한다.

강경민을 보낸 광주도시공사는 5일 삼척시청과 경기를 갖는다.

남자부는 11일 바레인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비 관계로 30일 리그 일정을 재개한다.

/연합뉴스

한국서 훈련한 태국 루지 선수 2명,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출전

19일부터 2월1일까지 진행

대한루지경기연맹의 지원을 받은 태국 루지 유망주 선수들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출전한다.

연맹은 3일 "태국 루지 유망주 티라파트 사타(17)와 수니타 차이아판토(16)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며 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고 전했다.

두 선수는 2022년 여름 루지연맹, 대한체육회, 2018 평창기년재단의 지원을 받아 강원도 평창을 릴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훈련했다.

동을 지도했던 김동현 강원도청 코치는 연맹을 통해 "두 선수는 진지하게 훈련하며 장벽을 허물었다"라며 "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꼭 원하는 결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횡성에서 열린다.

80개 국가 1900여명의 선수가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위시
2관	노랑: 죽음의 바다
3관	서울의 봄
4관	서울의 봄
5관	노랑: 죽음의 바다,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6관	노랑: 죽음의 바다, 트롤: 밴드 투게더
9관	위시, 노랑: 죽음의 바다
7관 씨네카를	더 퍼스트 슬램덩크: COURT SIDE in Theater,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
8관 씨네카를	위시, 서울의 봄, 신차원: 핑구는 못말려 더 무비 초능력 대결전 -날아라 수제김밥-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80회 정기연주회
2024 신년음악회 Festival
일시: 2024-01-16(화) ~ 2024-01-17(수) 19:30
장소: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정승희 개인전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한 순간>
일시: 2024-01-17(수) ~ 2024-02-18(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062-613-8357